
2011년 공무국외연수보고서

2011년도 8월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연수개요》

- 연 수 국 :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 연수목적
 - 해외 주요시설 견학 및 문화탐방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함양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료 수집
 -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습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연수기간 : 2011. 7. 25 ~ 7. 30 (4박 6일)
- 연수인원 : 13명(의원 9명, 직원 4명)

〈 목 차 〉

I. 연 수 개 요	-----	1
II. 연수지역 개요	-----	3
III.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	6
IV. 문 화 탐 방	-----	14
V. 시사점 및 발굴내용	-----	19
VI. 후기 및 소감	-----	26

I. 연 수 개 요

1. 목 적

싱가포르 등 3개국의 주요 시설 견학과 문화탐방을 통해 국제적 시각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의 우수한 사회 제도,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생활문화시설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경험으로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2. 기 간 : 2011. 7. 25(월) ~ 7. 30(토) 【6일간】

3. 연수국가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

4. 참가인원 : 13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이천시의회	의 장	김 인 영	
2	"	부 의 장	이 광 희	
3	"	의 회 운 영 위 원 장	김 문 자	
4	"	자 치 행 정 위 원 장	임 영 길	
5	"	산 업 건 설 위 원 장	성 복 용	
6	"	의 원	김 용 재	
7	"	의 원	김 학 원	
8	"	의 원	정 종 철	
9	"	의 원	한 영 순	
10	의회사무과	의 정 팀 장	윤 희 동	
11	"	의 사 팀 장	김 종 호	
12	"	행 정 7 급	김 동 현	
13	"	기 능 9 급	장 용	

5. 연수일정

날 짜	장 소	시 간	방 문 지
제 1 일 7월 25일 (월)	인 천 싱가포르	16:00 18:25 23:35	인천국제공항 3층 집결 인천 출발 / 싱가포르 향발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제 2 일 7월 26일 (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국경도시인 조호바루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전통문화 탐방(회교사원, 깡풍마을 등) ▶ 싱가포르로 이동 / 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일정 : PUB 뉴워터 비지센터 방문 및 견학 ○ 도시랜드마크 및 기반시설 견학(머라이언 파크, 차이나타운 등)
제 3 일 7월 27일 (수)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일정 :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방문 ○ 생태공원 및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견학(주룽새 공원) ○ 공식일정 : 노인복지시설 방문 및 견학 (TOA PAYOH SENIOR CITIZENS' HEALTH CARE CENTER LTD) ○ 지역특성화 사업현장 견학(센토사섬) ○ 하이닉스 싱가포르 해외법인 방문
제 4 일 7월 28일 (목)	싱가포르 바 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출발 / 인도네시아 바탐 도착 ○ 인도네시아 전통문화 탐방(중국사원, 나고야타운, 원주민마을 등) ○ 바탐 주요 기반시설 견학
제 5 일 7월 29일 (금)	바 탐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탐 출발 / 싱가포르 향발 ▶ 싱가포르 도착 및 수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 조성 및 보전 현장 견학(국립식물원:보타닉가든) ○ 공식일정 : 민방위청 및 민방위(소방)갤러리 견학 ○ 클락 키 탐방 등 ▶ 공항으로 이동
제 6 일 7월 30일 (토)	싱가포르 인 천	00:55 08:10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출발 / 인천 향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II. 연수지역 개요



1. 싱가포르

1) 국가개요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남중국 3해의 길목에 있는 섬나라로써 지정학적인 위치대로 동서양의 전통과 최첨단 문물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자유 무역항으로 시작하여 신흥공업국가로 탈바꿈한 싱가포르는 여러 민족의 문화와 코스모폴리탄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으뜸가는 금융센터와 관광, 식도락의 낙원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동서 421km, 남북 23km의 본섬과 크고 작은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면적은 697km²로서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1960년대 581.5km²의 면적에서 현재 면적으로 확장되었다. 2030년까지 100km²를 더 확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작은 섬이 본섬과 연결되었는데, 주룽 섬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싱가포르는 원래 살던 말레이 민족 인구나 3대에 걸친 중국인, 이민 온 인도인과 아랍인 그리고 현대에 이민 오거나 현지 파견된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만들어 내는 복합적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영국식민지 문화와 페라나칸(Peranakan, 해협 중국인 사회)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 들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싱가포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영어는 식민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국식 영어이다. 여기에 다양한 중국어 방언, 말레이어, 인도어가 뒤섞여서 싱글리쉬라는 일종의 영어 방언을 만들고 쓰게 되었다. 교육제도에서 영어가 주된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문학은 주로 영어로 쓰인다.

식민지시대에 이민자를 분리 수용하는 정책 때문에 리틀 인디아나 차이나타운 같은 민족성이 나타나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나, 결과적으로 이주민들이 자국에서 가져온 건축문화가 잘 보존되어 건축물을 통한 각 민족의 성격을 느낄 수 있다.

2) 인구 및 시차 : 465만7천명. 시차는 한국 시간보다 1시간 늦음

3) 언 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4) 화폐 및 환율 : 싱가포르 달러 사용, US\$1=약S\$1.8 / S\$1=약W880

5) 기 후

적도에 인접한 열대기후로 연평균 28℃ 정도, 기온의 변화는 거의 없고 강우량에 따라 다소 변화를 느낄 뿐임. 일 년 사계절 항상 여름으로써 2월 ~ 11월은 건기로 무더우며, 12월 ~ 1월은 우기로 스콜현상이 있음

2. 조호바루 지역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는 '새로운 조호'라는 뜻으로 싱가포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약 1km 떨어져 있으며 코즈웨이 다리와 말레이시아 철도로 연결되어 있다. 거리가 가깝다보니 싱가포르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렴한 물가를 이용해 쇼핑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다.

- 1) 인 구 : 87만명
- 2) 면 적 : 185km²(말레이시아 전체 329,758m²)
- 3) 인 종 : 말레이지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유럽인
- 4) 종 교 : 이슬람교
- 5) 기 후 : 연중 맑고 더운 날씨(21℃ ~ 32℃)연간 강수량 2,000 ~ 2,500mm
- 6) 언 어 :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광둥어)
- 7) 시 차 : 한국 시간보다 1시간 늦음

3. Batam 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 섬으로 싱가포르와 약 20km 떨어져 있으며 배로 약 30 ~ 40분가량 소요된다. Batam 섬은 행정상으로는 인도네시아 리아우 군도 중에 하나이며 싱가포르에서 투자한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하다.

- 1) 인 구 : 90만명(인도네시아 총인구 2억4천만 명)
- 2) 면 적 : 415km²
- 3) 종 교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회교나라
- 4) 기 후 : 고온다습한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 연평균 기온 27℃
- 우 기 : 10월 ~ 3월, 건기 : 4월 ~ 9월
- 5) 언 어 : 인도네시아어, 영어 등(실제로는 250여 가지의 다양한 언어 사용)
- 6) 시 차 : 한국 시간보다 2시간 늦음
- 7) 화 폐 : 루피아(RUPIA)

Ⅲ.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1. PUB 뉴워터 비지터 센터(Public Utilities Board NEWater visitor centre)



뉴워터 비지터 센터 전경



뉴워터 통제실



뉴워터 비지터 센터 내부



뉴워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싱가포르 초등학생들

PUB는 전기나 수도 등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로써 NEWater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마땅한 취수원이 없는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로서 수입과 바닷물 담수화 등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NEWater를 생산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 물 공급원〉

1. Local catchment water(빗물 등을 모은 저수지물)
2. Imported water(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물)
3. Newater(오수를 정화처리하여 재생산한 물)
4. Desalinated water(바닷물을 담수화하여 탈염한 물)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수입하는 송수관

이중 NEWater는 오·폐수를 음용수로 전혀 문제가 없는 물로 재생산한 물로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될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NEWater는 대부분은 공·상업용수로 판매하고 일부는 저수지로 보내져, 저수지 원수와 섞어 일부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오수를 정화한 물이라는 이유로 음용수로서의 인식이 좋지 않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NEWater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NEWater visitor centre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꾸준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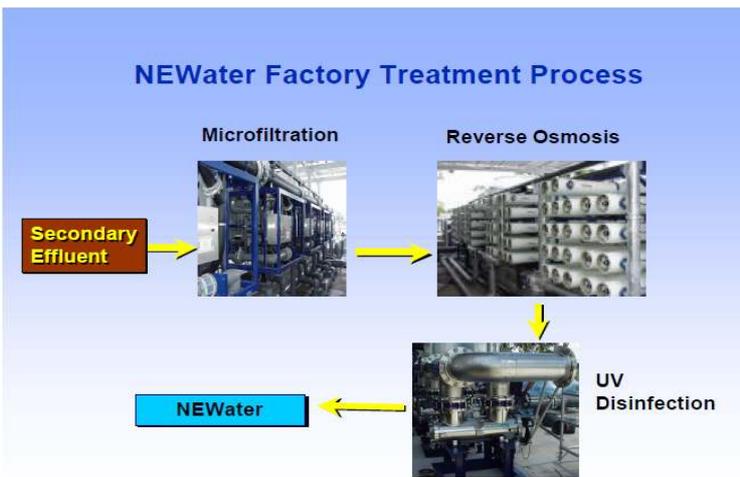
현재 NEWater는 싱가포르 전체 물수요의 30%정도를 충당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는 50%까지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물이 부족하고 상수원 수질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NEWater 시스템은 고려해 볼 사례 중에 하나일 것이다.

□ 하수처리 및 NEWater 생산·이용

○ 하수처리 물 재이용

- NEWater기술은 외국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재조합·구성하였으며, 자체 기술진에 의해 운영·관리
- 물 재생 분야의 기술우위를 선점하여 역 수출기반 조성
- 국민 환경의식 제고 및 관광상품화
- 전체 하수발생량의 7%를 음용수 수준으로 고도 처리하여 재생산

- 재생산 물의 약 10%는 간접음용수로 이용(저수지로 이송하여 정수처리) 하고 나머지 90%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업용수로 공급
 - ※관광객 또는 환경교육 내방객에게는 페트병에 담아 음용수로 제공
- 재이용 물 활용 촉진을 위해 공급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
- 일반 수도물은 생산원가 20~30센트로 공급가격이 1불57센트이나, NEWater는 생산원가가 50센트지만 공급가격은 1불15센트(싱가포르 달러)로 저렴하다.
-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 총 6개 하수처리장이 설치(1,340천톤/일)되어 있으며, 방류수를 BOD 20mg/l, COD 30mg/l로 처리한 후 바다로 방류
- 생산단가 : 2,700원(실제 부과요금은 하수도요금 포함 4,200원)
- 처리시설의 관리
 - 유지관리 : 싱가포르 관리공단
 - 시설설치 : 각 분야별 분할 발주하고 제논사에서 기술 공급
- 이용현황 : 공업용수 70%, 상업지역 냉각용수 20%, 저수지(취수지)로 10% 이송



뉴워터 처리 과정
 (오수→정밀여과공정→역삼투압공정→자외선살균처리
 →뉴워터)



'호르몬 교란물'을 축구공으로 '바이러스'를 트럭으로 표현하여 물분자 외 불순물은 걸러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줌

□ NEWater 운영 현황

○ 추진배경

- 상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005년 현재 약 75%를 인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2011년과 2061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물 부족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수자원 관리청 산하 PUB에서는 현재 3개 재이용 처리장에서 1일 91,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98%는 공업용수 등 기타 용수로 사용되고, 2% 상수도용 저수지로 공급되어 저수지수와 혼합되어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주체

- 수자원환경청(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 사업시행 및 운영 : PUB(Public Utilities Board)

□ NEWater 새로운 프로젝트

현재 PUB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모든 공정에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전 세계 물부족 국가들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 URA 시티 갤러리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City Gallery)

URA City Gallery는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인 URA (도시재개발청)에서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 과정을 미니어처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전시하는 공간으로 URA 건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체를 축소한 도시 모형을 보며,
싱가포르 도시계획과 구조를 살피고 있음



싱가포르 도시계획의 콘셉트 플랜
(Concept Plan)

URA는 싱가포르를 “살기 좋은 최고의 도시(Creating a great city to live, work, and play in)”로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40년 전 인구과밀문제와 부족한 인프라시설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직면해 있던 싱가포르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과 추진을 통해 깨끗한 도시, 녹색환경이 아름다운 도시, 삶의 질이 높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변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기관이다.

URA의 도시계획은 71년부터 시작된 10년 단위의 콘셉트 플랜(Concept Plan)과 5년마다 계획되는 마스터 플랜이 기본이다.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50년 후의 경제상황과 인구, 수공문제 등을 고려해 10년 단위의 토지이용원칙을 세우고 5년마다 실제운용을 점검한다.

콘셉트 플랜과 마스터 플랜은 건설부와 URA를 주축으로 정부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계획하는데, 인구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추이, 첨단산업 부지, 새롭게 부상되는 분야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URA City Gallery에는 싱가포르 전 지역을 축소하여 표현한 미니어처를 통해 싱가포르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개발 중인 지역과 개발 예정인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싱가포르의 발전 과정과 미래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될 무렵부터 현재까지의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시대별·주제별로 사진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3. 토파요 노인헬스케어센터 (TOA Payoh Senior Citizen Health Care Centre Ltd)



토파요 노인헬스케어센터(정문)



토파요 노인헬스케어센터 운영현황
브리핑 모습

토파요 노인헬스케어센터(TPSCHCC)는 비영리 자선시설로서, 현재 싱가포르 사회복지협회와 공영 자선협회에 등록 되어있다. 대부분 자선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돌봐주고 있다.

피로티(1층을 빈 공간으로 뒀) 구조의 아파트 1층을 정부에서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는 토파요 복지시설은 우리시의 주간보호센터와 유사한 시설이나,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으로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이용자들은 본인의 연금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음악회 및 거리공연 등의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직원들은 주로 자원봉사자이며 약간의 사례금을 받는다. 토파요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은 물리치료와 그림 그리기, 만들기, 퍼즐 등이 있으며, 환자 수송 순회차량 운행과 투약, 식사보조 등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토파요 시설 이용자 격려



환자 수송 차량

4. 민방위청 및 소방갤러리



소방갤러리 직원 브리핑 청취

싱가포르는 민방위단은 통일된 지위 체계를 가진 조직으로 주요업무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화재, 구조 및 긴급환자수송 서비스 등과 같은 비상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소방 갤러리는 중앙소방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년이 넘는 옛 소방서 건물을 잘 보존하여 소방갤러리로 사용하고 있다. 1800년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전통의 싱가포르 민방위 및 화재 진압 발전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소방차와 물차 등 소방장비와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우리 방문단은 화재 시, 소방 출동 사항과 장비에 대한 설명, 인력동원과 응급환자 조치 등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나하나의 시범을 직접 볼 수 있었다.

5. 하이닉스 싱가포르 해외법인 방문

현대건설이 지은 ‘썬텍 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기업이자 지역기업인 하이닉스 반도체 싱가포르 해외법인을 방문하여 사업계획과 현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해외에서 노고가 많은 하이닉스 싱가포르 법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하이닉스 싱가포르 법인 브리핑 청취 및 기념 촬영

IV. 문화 탐방

1. 머라이언 파크 (Merlion Park)



머라이언 상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금융의 중심지인 래플스 플레이스(머라이언 뒤)

머라이언 파크는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 상이 있는 공원으로 싱가포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인 마리나 베이(Marina Bay)에 위치하고 있다. 머라이언 파크는 싱가포르에 여행 오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로 유명하다. 엘리자베스 산책로에서 앤더슨 교를 건너면 바로 앞에 머라이언이 있는데, 1972년 9월 15일 오후 8시 45분에 리관유 수상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머라이언은 싱가포르의 상징물로서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가상의 동물이다. 머라이언(Merlion)은 'lion'(사자)에 바다를 뜻하는 'mer'를 합성한 단어이다. 하반신의 물고기는 항구 도시를 상징하며, 고대 싱가포르를 테마섹(Temasek, 자바어로 '바닷가 마을')이라고 칭한 것에서 유래한다. 상반신의 사자는 싱가포르의 국호였던 싱가포르(Singapura,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로부터 유래했다.

머라이언 상이 있는 마리나 베이 주변에는 싱가포르 금융의 중심지인 '래플스 플레이스'가 있고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그리고 두리안 모양의 문화예술 공간인 '에스플러네이드', 초대형 관람차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 한 곳에서 싱가포르의 유명 볼거리를 모두 볼 수 있는 명소이다.

2. 주롱 새 공원 (Jurong Bird Park)



새 공연이 펼쳐지는 연못 원형극장



주롱 새 공원의 홍학

싱가포르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와 함께 싱가포르 3대 관광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주롱 새 공원은 6만 평이 넘는 대규모 부지 안에 세계 각지에서 불러 모은 800여종 8,000마리의 새들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동시에 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펭귄 퍼레이드' 구역은 남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5종류, 200여종의 펭귄들의 안식처이며, 50여종의 바닷새들도 함께 서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색깔이 화려한 큰 부리 앵무새와 코뿔새,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 정글에서 온 100여종의 새들도 있다.

주롱 새 공원에는 '파노레일(Panorail, 파노라마 뷰와 모노레일의 합성어)'이라고 불리는 냉방장치가 잘 된 모노레일을 운행하여 공원 전체 코스를 구석구석 돌며 다양한 구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관광객을 위한 한글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다.

3. 센토사섬 (Sentosa Island)



센토사 섬 소재 '머라이언 타워'



센토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노레일



머라이언 타워에서 바라 본 싱가포르 중심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전시관

센토사 섬(Sentosa)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휴양지로 섬 전체가 거대한 테마파크이다.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센토사섬은 우거진 열대우림과 황금 모래사장, 세계 유명 챔피언십 골프 코스와 초호화 리조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과 비즈니스맨들에게 인기가 많다. 옛날 영국군 기지로 사용했던 센토사는 1972년 국민들의 여가를 위해 개발했다고 한다. 관광객들은 싱가포르 남부지역에서 센토사 익스프레스(모노레일), 셔틀버스, 케이블카를 이용해 센토사 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 중 가장 크고 매력적인 머라이언 타워가 센토사 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타워 입구에는 머라이언의 유래에 대한 애니메

이선 상영시설이 있다. 37m 높이의 전망대는 360도 전체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또한 센토사 섬에는 미국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워터파크형 호텔, 쇼핑센터, 식당가, 카지노, 컨벤션 센터, 콘서트홀 등이 자리하고 있는 '리조트 월드 센토사'가 있으며, 360도 회전하는 전망대 타이거 스카이 타워, 싱가포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인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Images of Singapore)', 워터월드, 팔라완·탄종 비치, '송즈 오브 더 시'(Sons of the Sea 영상 분수) 등이 센토사는 물론, 싱가포르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다.

4. 클락 키 (Clarke Quay)



싱가포르 최고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의 노천카페와 리버 크루즈

과거 클락 키는 교역량이 많았던 보트 키에서 가져온 상품들을 저장해 두는 창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1970년대부터 강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싱가포르 정부는 이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 사업을 파시르 판장 지역으로 옮기고 대대적인 개발에 착수,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해 싱가포르 최고의 나이트 관광 장소로 자리 잡았다. 알록달록 화려하게 색칠한 옛 건물들은 물론 은빛으로 빛나는 대형 지붕과 아름다운 중앙 분수대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며, 저녁

이면 강과 골목을 다라 제각기 독특한 콘셉트의 낭만적인 노천카페, 레스토랑, 바(Bar)는 매우 매력적이다. ※ 키(Quey) : 방파제, 부두

5. 조호 바루 지역 (Johor Baharu)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이슬람 사원인 술탄 아부바카르 모스크는 19세기 말에 세워졌으며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무리시 스타일의 건축물로 하얀 외벽과 파란 지붕이 낭만적이다. 깜pong마을은 말레이 반도 남쪽의 원주민들의 주거양식을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곳으로 하층 계급보다는 말레이족 중류층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독특한 문화를 볼 수 있다.

6. 바탐 섬 (Batam Island)

인도네시아 바탐 섬의 나고야 타운은 바탐 섬의 최대 중심지로 금융시설과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바탐 섬 대부분의 은행들과 환전소가 나고야에 있다. 바탐 섬의 원주민 마을에는 30여 가구 8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생활모습은 극히 빈곤하다. 나고야 타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미개발된 지역이 많은 가운데, 아파트가 위로 세워지지 않고 옆으로 건축된 주거 단지가 있는 점이 특색이 있었다. 이슬람교가 대부분인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 중국사원이 있어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사원인
「술탄 아부바카르 모스크」



인도네시아 바탐 섬 내
중국 사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바탐섬 주민들

V.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

이번 연수 결과,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이나 관광자원 등을 이천에 그대로 그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국가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우수 사례를 좇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와 개발·발전을 위해 앞을 내다보며 불리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지속적인 집행으로 국가의 비전을 실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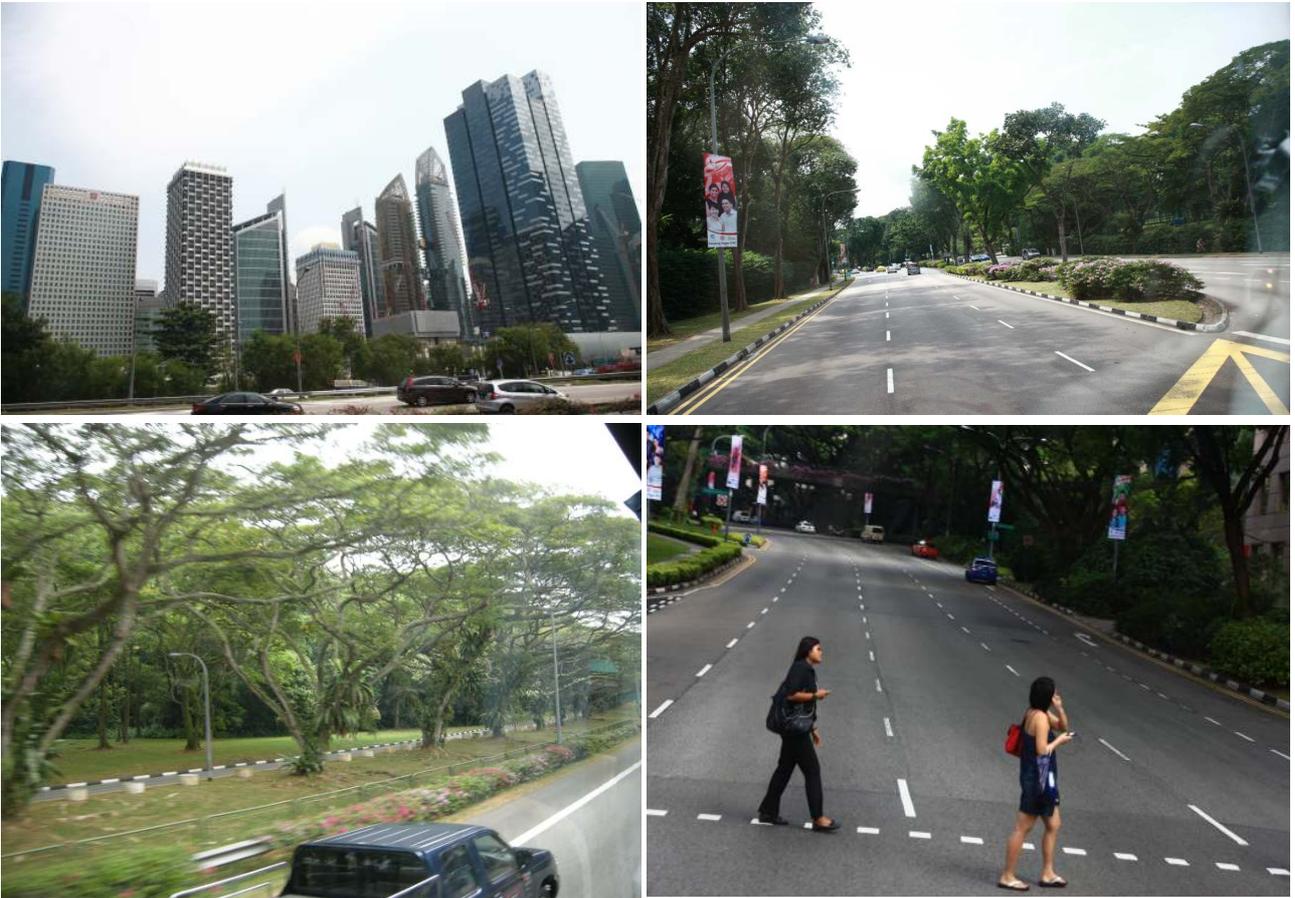
엄격한 제도 속의 불편함을 참아내며 준법 의무를 다하여 다인종 간의 조화를 훌륭하게 일궈 싱가포르만의 발전적인 다인종 문화를 만들어 낸 싱가포르인들의 의식을 교훈삼아, 이천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진정한 행복 도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한 소감과 우수한 사례는 추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여 이천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며, 연수 결과 시사점 및 발굴내용 몇 가지를 간략히 작성한다.

1.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 환경

싱가포르가 주는 첫 번째 인상은 차분하면서 잘 정돈된 그리고 깨끗한 도시라는 점이다. 싱가포르 독립 초창기부터 도시계획에 따라 철저히 계획되어 전주가 없는 도시, 빌딩과 나무와 숲이 어울리는 환경은 전깃줄이 얽혀 있는 우리나라를 한참이나 앞선 것 같다. 또한 거리는 담배꽂초, 쓰레기를 버리는 손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깨끗하다. 엄격한 제도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지만,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시민의식과 정부의 강한 의지와 행정력이 싱가포르의 깨끗한 거리가 만들었을 것이다. 깨끗한 정부가 만들어 낸 공정하고 정당한 제도의 시행과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시민의식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잘 정돈된 가로수와 깨끗한 거리 환경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싱가포르의 고층빌딩과 시원하게 뺏은 도로들. 좌측하단의 나무는 '레인 트리(Rain Tree)'로 싱가포르에서 가로수로 많이 식재는 나무이다.

○ 싱가포르를 '벌금 도시(?) (Fine city)' 불리게 한 벌금 표지판 들이다.



싱가포르의 벌금 표지판들(좌부터 쓰레기 투척 금지, 자전거 금지, 싱가포르 차량 3/4미만 유류 잔량 금지) ※ 자동차를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로 출국 시 유류(휘발유 등)가 3/4이상이 채워져 있어서 한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비해 유류비가 저렴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주유하고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단순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눈에 잘 띄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한 간판과 다르다.



싱가포르에서 본 '식당', '카페', '클락 키'를 알리는 간판들

2. 관광자원 “無” 에서 “有” 를 만들어 내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은 인력으로 만들어 낸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변국인 인도네시아(바탐섬)는 미개발된 땅이 많으며, 관광상품 또한 리조트 시설과 골프장 등인 것인 반면, 싱가포르는 머라이언 파크, 센토사 섬, 동물원, 보타닉 가든, 주룽 새 공원 그리고 고층빌딩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싱가포르는 이천시가 가야할 관광산업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정법 등 다수의 규제에 묶여 개발 사업이 여의치는 않지만 이천시가 관광산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시의 관광여건 등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자연자원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자원을 개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는 완전히 차별화 되고 오직 이천에서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의 독창성과 차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머라이언(Merlion)’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을 이용한 관광 상품과 국가 이미지 홍보 - 머라이언과 사진을 찍지 않고서는 싱가포르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하다.
- 인공적이면서도 최대한 자연그대로를 살리면서 개발한 관광자원 - 울타리가 없는 새장이 있는 주룽 새 공원, 보타닉 가든(식물원)은 공연이 열리는 휴식과 운동을 위한 장소로 손색이 없으며 규모 또한 크다(입장료 무료)
- 인공적으로 조성한 센토사 섬을 완전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클락 키 지역의 활성화된 상권과 노천카페 - 강과 어울리는 조명, 강을 끼고 들어선 노천 카페촌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클락 키에서의 예술적인 아케이드(지붕)와 광장의 분수는 매우 인상적이다.



클락 키의 아케이드 시작 지역



클락 키 노천카페



클락 키 중앙광장(분수)지역



클락 키의 환상적인 아케이드 야경

3. 다인종의 융화, 성숙한 교통문화

싱가포르를 시내를 걸으면 정말 다양한 인종을 보게 되는데, 정말 잘 어울려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구 구성을 보면, 중국인들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인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 인종 간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걸으로 보기에 는 참으로 잘 어울려 살고 있다.

이천시에는 현재 4,605명(2011년 7월말 현재)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작년에 비해 810명이 늘어났는데, 인구 20만 여명의 자치단체에서 1년 사이에 810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닐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천시에서도 한국어 및 취업 교육, 문화체험,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이주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을 없애고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도로를 무단 횡단 하는 사람 또한 볼 수가 없었으며 보행 중 흡연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보행자를 기다려 주는 자동차, 사람들도 느긋해 보인다. 잘사는 나라의 국민임에도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소박함에서 그들의 절제된 여유가 느껴진다.

○ 경적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나 도로에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규정 속도를 철저히 지키는 싱가포르의 교통문화. 엄격하게 교통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차량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자동차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느는 등 자동차가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싱가포르의 엄격한 제도 시행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한속도와 승차인원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생소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것이다.



'60km'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차



제한속도와 탑승인원(12명)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차

4. 함께 만드는 도시의 내일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50년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10년 마다 콘셉트 계획을 세우고 5년 마다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세운다. 그리고 URA City Gallery에서 도시계획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싱가포르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며 집행함은 물론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또한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는 매년 도시계획(Urban Planning) 워크숍과 대회를 열어 싱가포르 청소년들에게 독특한 계획에 대한 도전과 디자인 및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도시계획 전문가 프로그램(Young Urbanist Programme and Design My Place) 등도 운영하고 있다.

강한 정부의 통제력이 싱가포르 성공적인 도시개발의 원동력이겠지만 국민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정책 또한 발전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개발할지 연구 중인 지역 '도시국가에 필요한 시설의 주택과 조경이 조화를 이룬 풍경 균형'을 고려한 도시계획

이천시에도 마장·중리지구 택지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동물원, 패션아울렛단지, 산업단지, 도자예술촌, 민주공원, 서희테마파크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천의 미래에 대하여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천시가 한 폭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 연수후기 및 소감

2011년 7월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이었지만, 오고 가는 이틀을 제외하면 주어진 시간은 4일이었다. 4일이라는 시간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바탐 섬은 환경이 너무나 달랐다. 면적이 싱가포르가 약 300km² 정도가 클 뿐, 두 곳 모두 섬이고 인접해 있는데, 바탐 섬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생활수준은 우리나라의 60 ~ 70년대를 연상케 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의 위대함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볼 때, 입증이 되는 것 같다.

싱가포르는 4청(四淸)의 국가로 물, 도로, 공기, 정부가 깨끗한 국가라고 한다. 좁은 국토 면적,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적은 인구, 섬나라 등 불리하다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풍기는 도시이다. 떨어진 휴지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리, 깨끗한 건물 그리고 화려함 대신 단순하면서도 미적 감각이 넘치는 상가의 간판, 도시 전체의 색깔 또한 조경과 어울림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여유롭고 소박함이 느껴졌다. 특히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모습은 인상이 깊게 남는다.

국가개발을 위해 거의 독재나 다름없는 정치는 펼치는 정부 주도로 국가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잘 지키고 따랐던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신뢰가 높은 국가를 믿고 충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낸 결과, 지금의 훌륭한 환경에서의 삶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듯하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하나로 융화되어 나오는 다양성과 일체감은 싱가포르가 더욱 다채롭고 신기한 곳이 될 수 있게 해준다. 궁금하기도 하다. 땅은 좁지만 넓은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클락 키(Clarke Quay)의 야경과 노천카페, 머라이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주룽 새 공원과 거리에서 부딪혔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의 모습은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싱가포르의 교육제도에 대한 일정은 없었다. 그러나 현지 가이드의 설명과 말레이시아의 어린 학생들이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싱가포르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싱가포르 교육의 일부분을 알 수 있었다.

20세를 전후하여 직업이 결정되는 우리와 달리 초·중학교 때부터 성적에 따라 우열반이 갈라지고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어, 상위 20%정도만 대학에 진학을 하지만 나머지는 적성과 소질에 따라, 다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는 견해의 차이와 선진 교육제도의 여부를 떠나서,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교육 정책 수립 시 싱가포르의 사례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서울의 면적과 비슷한 도시국가이다. 이천 면적이 461km²정도이니까 이천보다 약 230km²정도가 넓다. 싱가포르와 이천시는 차이는 분명하

다. 도시국가와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개 자치단체인 이천시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우리가 배울 점은 있다는 것이다. 옛말에 '반면교사'(反面教師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고 우수한 것은 물론, 그렇지 못한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발전을 위한 배울 점이 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고 관광객들은 왜 싱가포르를 찾는지 그리고 외국회사들은 왜 싱가포르에 투자를 하는가? 등등 반면 인도네시아는 왜 발전이 더디고 국민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고민해 본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천의 비전은 무엇이고 진행 경과와 문제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앞날을 위해서는 물론, 현재를 위해서도 다각적이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천은 살기가 좋은 곳이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된다. 연수기간 동안 낯선 환경에서 짜여진 일정에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시대와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도 항상 복잡한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고 항상 개

발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수 또한 이천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향후 이천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을 넓히는 계기로 실시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은 원·내외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배움의 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배우고 익히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